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3584.55	↑ 코스닥	760.49
	(-26.05)		(+1.00)
↓ 금리 (미국 9년)	2.554	↑ 환율	1428.70
	(-0.037)		(+7.70)

‘도전과 혁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5주년

전동화·SDV 앞세워 미래차 리더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

팬데믹 넘어 ‘글로벌 톱3’
품질·기술·브랜드 ‘3박자’
매출·이익 모두 사상 최대
美고율관세·中리스크 과제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5주년을 맞았다.

2020년 10월 코로나 19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 속에서 출발한 정의선 회장의 5년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취임 이후 친환경차를 앞세워 글로벌 완성차 ‘빅3’로 성장시키고 일반 자동차 회사의 개념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두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율 관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정의선 회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위기를 전략적으로 헤쳐나가며 현대차그룹의 질

적 성장을 이끌었다.

정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액은 2019년 163조 8924억원에서 2024년 282조 68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합산 영업이익은 5조 6152억원에서 26조 9067억원으로 380% 급증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해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극도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13조 86억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사상 처음 글로벌 2위에 올라섰다. 영업이익률은 8.7%로 폭스바겐(4.2%)을 비롯한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상회했다.

정 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연구 및 혁신 허브인 국내에 올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2025년 기아EV3까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받은 글로벌 어워드만 25개다. 차량 안전성, 친환경성, 고성능,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등 모두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수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수소 밸류체인 모든 단계에 솔루션을 제시하며,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실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회사에서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SDV), 수소, 로봇,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모빌리티 그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취임 이후 고객, 미래세대, 나아가 모든 인류의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정의선은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하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로 장을 마감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닥은 1포인트(0.12%) 오른 860.49에 장을 마쳤다. 장중 1430원을 돌파한 원달러환율은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자 오후 3시30분 기준 1425.8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시스

美中 관세전쟁에 코스피 3600선 붕괴

韓日 등 아시아 증시 직격탄
환율 치솟자 당국 구두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던진 ‘관세 100% 부과 예고 폭탄’에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13일 1% 가까운 하락 폭을 보이며 주저앉아 3600선을 내렸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원화 가치가 장 중 1430원대

까지 하락하자 외환당국은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관련기사 13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 225, 홍콩 항셍지수,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 1일(현지 시각)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우려 확대

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됐다. ‘트럼프 트리거’(자유무역→전략적 보호무역) 공포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도 상무부 대변인이 나서 “미국이 고집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며 협상 여지

를 남겼지만,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달래지 못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142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중 원화 가치가 1430원대로 급락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흔들림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두개입했다. 시장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평균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中으로 새는 K-반도체 기술 숨방망이 처벌이 불씨 키워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시급

국내 반도체 기술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숨방망이 처벌’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산업통상부의 ‘2025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해외 유출 산업기술 105건 중 반도체 분야는 4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팀을 꾸려 메모리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사건의 추산 피해 규모는 4조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정부가 전폭

적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CXMT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 기술이다. 이들은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중국 CXMT로부터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여야, 국민·국가 위한 길 함께 해주길… 정부도 국가감에 적극 협조” /사진 뉴시스
- ▲국회 외통위, 22일 캄보디아서 현장 국가감… ‘한 국민 범죄’ 대응 점검

- ▲오세훈 “조국,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혼수… 참 답답해”
- ▲안규백 “주한미군 최우선 임무는 대북 억제… 비상계엄은 내란”

- ▲김윤덕 국토장관 “추가 대책서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 ▲배경훈 부총리 “日 노벨상 부러워만 할 때 아나… 기초과학 제대로 투자해야”

‘영구정지 해제’ 유튜브… 혐오선동가·범죄자 복귀 우려

‘세컨드 찬스’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저작권 침해 계정은 제외 했지만
혐오·폭력 콘텐츠 별도 언급없이
모호한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우회 복귀의 공식화 조치” 지적



유튜브의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 도입이 혐오 선동 및 범죄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복귀라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글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유튜브가 과거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채널 개설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두 번째 기회)’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혐오 선동가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범죄자들의 복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공식화했으나,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고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두루뭉술한 내부 기준으로 판단 여부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계정이 영구 정지된 혐오·폭력 크리에이터들도 세컨드 찬스 대상 인지’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질의에 “파일럿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해지됐거나 구글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을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또 현재로서는 유튜브

채널·구글 계정을 삭제한 크리에이터도 ‘새 채널 요청’ 옵션을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새 채널 요청을 평가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해당 크리에이터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약관을 특히 심각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했는지, 또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동이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채널처럼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쳤거나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이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에는 타인에게 악의적인 해를 끼치거나, 학대·폭력·사기·기만 행위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 위반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음에도, 과거 논란을 일으킨 계정주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로 논란이 된 유튜버나, 폭력성 콘텐츠로 계정이 정지된 크리에이터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통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제재를 받은 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에서 활동을 반복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우회 복귀’를 공식화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작권 침해 계정을 복귀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반면,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이라는 모호한 내부 기준으로 혐오 및 폭력 콘텐츠 위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은 구글이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본 파일럿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장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그 어떤 표현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플랫폼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컨드 찬스 정책은 플랫폼의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잘못된 예시가 됐다”며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잘못해도 나중에 다시 계정을 풀어주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돈이 되는 혐오 콘텐츠를 대량 양산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짐 조던 미 하원의원의 소환장 발부와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소송에서 거액을 합의한 직후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알파벳은 최근 조던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해지된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시민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의 세컨드 찬스 정책 도입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한 것이냐’는 본지 질의에 구글코리아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337억 대출규제 완화에 ‘사상최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재명 정부, 강력 대출규제 해야”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 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 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 원, 2024년 말 337조 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뽕뽕한 한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 5000억원, 2022년 말 1013조 4000억원, 2023년 말 1064조 3000억원, 2024년 말 1123조 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정의선, 美 25% 관세·中 전기차 공세 ‘과제’

>> 1면 ‘도전과 혁신, 정의선…’서 계속

이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객중심의 설루션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를 위한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미국의 25% 관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적용을 유지하는 반면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의 관세를 15%로 인

하해 현대차그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분기 관세 비용은 2조 원 이상이다. 결국 미국 시장 대응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비율을 2030년 80%까지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하이브리드차를 8종에서 18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부담이다. 비아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는 정부 지원과 막대한 투자로 기술력은 물론 점유율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

수출기업의 더 큰 성장에
ksure가 함께합니다

격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활동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윤덕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적
김 장관 “주중 부동산 대책 발표 목표”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고점을 돌파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이나 보유세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라 금융과 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6월 초 집권한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 정리되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를,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불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억제책이었다”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열렸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었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3500억달러 對美 투자 ‘새 국면’ “美, 새로운 대안 제시… 검토 단계”

외교통일위, 직접투자 관련 질의
조현 장관, 국익기반 협상 강조
“외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방안에 대한 금융패키지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측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 직접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

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관세협상 타결에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외환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 이유(외환위기 가능성)로 인해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1면 ‘中으로 새는 K-반도체’서 계속

검찰은 이들의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매출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며 알게 된 하이케이 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첨단 기술 및 영업비밀을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강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

업 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81건의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하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과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유출 경로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직을 시도하는 전직 임직원의 경우 유출이 의심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기술 유출을 간접 행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는 집행유예가 많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며 “국내에서도 양형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직원 이직 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기업 간 인력 알선 및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Look for In-N-Out Burger®
인앤아웃 버거를 경험해보세요!

at

Schedule/Cheongdam
스케줄청담

G37, Seolleung-ro 152-gil,
Gangnam-gu 1/f, Seoul

서울 강남구 선릉로 152길 37 1층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48,
In-N-Out Burger will be in Seoul. For
those who have not yet experienced
In-N-Out, be sure to come and check us
out at this special promotional event.

We will be serving our famous:

1948년부터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있는
In-N-Out Burger가 서울에 찾아옵니다.
아직 In-N-Out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본 행사에서 꼭 오셔서 저희를 만나 보세요.
판매 예정인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 Double-Double® Burgers

더블 더블

🔥 Animal Style® Burgers

애니멀 스타일

🔥 Protein Style™ Burgers

프로틴 스타일

October 15, 2025
11am to 3pm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First come – first served.

Limited quantities available.

선착순 한정 수량 판매

Quality you can taste.™

맛으로 증명된 품질!

That's what a hamburger's all about.™

햄버거의 진수를 맛보세요!



수천억 매출에도 망·세금 부담 '0원'... 불공정 경쟁 재점화

‘글로벌 빅테크’ 국감 도마 위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
애플, 세금 해외이전 논란 불붙어
콘텐츠 독점 계약, 시장 왜곡 지적
지도 반출 요구에 안보 우려 재부상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며 이들의 국내 사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시장을 지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망 무임승차’, ‘콘텐츠 독점’, ‘지도 데이터 반출’, ‘조세 회피’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예고했다.

1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인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8일 동안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역차



ChatGPT로 생성한 올해 국정감사에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미지.

별 비판 고조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망 무임승차’ 문제다. 구글(트래픽 점유율 31%)과 넷플릭스(5%)는 국내 트래픽 발생량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망 사용료로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비슷한 기준으로 망 사용

료를 냈다면 지난해 최대 3479억원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통신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트래픽이 전체의 70%에 달하는데, 망 투자비는 모두 국내 통신사가 부담하는 불균형 구조”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가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어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 소비자 기만 행위도 쟁점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레지널드 손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와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특정 작품의 독점 공급 계약 방식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 가능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수익 배분 문제 역시 과거 국감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안보 위협하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

구글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해당 데이터가 구글의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군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반출 조건으로 내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구글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

기에 더해 최근 ‘독도박물관’이 사용자의 수정 제안으로 ‘김일성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됐던 사례는, 구글이 정밀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막대한 수익에도 쥐꼬리 세금... ‘조세 회피’ 의혹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조세 회피’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6배 이상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고도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매출 상당 부분을 세율이 낮은 해외 법인으로 라이선스,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이오 따로 키운다’... 삼양·삼성, 차세대 성장동력 시동

바이오 전담 신설 법인 출범 CDMO·시밀러 분리해 효율성 강화 기술 독립 앞세워 글로벌 경쟁 대응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삼양그룹과 삼성그룹은 각각 바이오 전담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며 K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문화를 본격화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이 그룹 핵심 사업인 바이

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삼양그룹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는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룬다. 삼양홀딩스는 의약바이오 사업 부문을 단순 인적분할해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한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는 임태웅 대표가 이끌며 지주회사 역할만 담당한다. 분할 신설회사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 체제로 이뤄진다. 김경진 대표는 지난해 삼양그룹에 합류해 바이오 팜그룹장 등을 지낸 바이오 전문가다. 삼양바이오팜은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 차세대 기술인 mRNA 전달체 연구개발 등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는다.

실제로 유전자 전달체 ‘SENS’를 자체 개발했고 이를 응용한 신약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암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형암 7종, 혈액암 5종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확대뿐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생산이 어려운 항암제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주력 사업인 수술용 봉합사 사업에서도 속도를 낸다.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개발에 성공한 후 현재 약 45개국 190개 이상의 기업에 원사를 공급한다. 원사 공급량 기준으로 글로벌 봉합원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의결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다.

이날 최종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소를 신규 설립하게 된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맡

고, 삼성에피소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자회사 등을 관리하고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에피소홀딩스 자회사로 100% 편입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이러한 인적분할 계획을 밝혀 왔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수주 계약을 맺으며 의약품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사업과 고객사와 경쟁 의약품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을 넘어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까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국가스공사
KOGAS KOREA GAS CORPORATION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루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與野, 8개 상임위서 ‘내란종식·한미관세협상’ 등 송곳 검증

국정감사 첫날

與,尹-국민의힘 협력 여부 감사
조희대, 국감장 증언 없이 퇴장
野, 김현지·민중기 등 출석 요구
대미투자 질의에 “베스트 장관 설득”
캄보디아 범죄 조치 처리 약속도

국회가 13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종식’을 기조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심판’을 기조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려는 여야의 정면대결이 펼쳐질 이달 말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협력 여부를 밝혀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

감장 증언대에 서느냐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

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증언으로 국감장에 남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느냐 여당의원의 질의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침묵을 지키며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안들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책과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복구 지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근로자 체포 구금 사건 ▲캄보디아 대학생 폭행 및 고문 사망 사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주요 현안을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연휴 동안 국감 불출석 논란으로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국

감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와 외통위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베스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스트 장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범죄 조직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한 끝에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해외 국민 안전에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조현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체류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국화동호회

“K-컬처, 국격·국력 핵심 문화 종합대책 수립 필요”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화산업 진흥방안 주제로 집중 논의
콘텐츠 기반 확충 혁신에 속도내야
문화예술이 사회 안정망 강화 노력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업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문화산업 진흥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 산업 진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휴 기간 수렴한 민심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 등이 많이 앞서있어도 압도적이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

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문화라고 하면 음악, 예술,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체계”라며 “K-팝부터 시작해 K-드라마, K-무비(영화)를 넘어 이제는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에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서둘러야 하겠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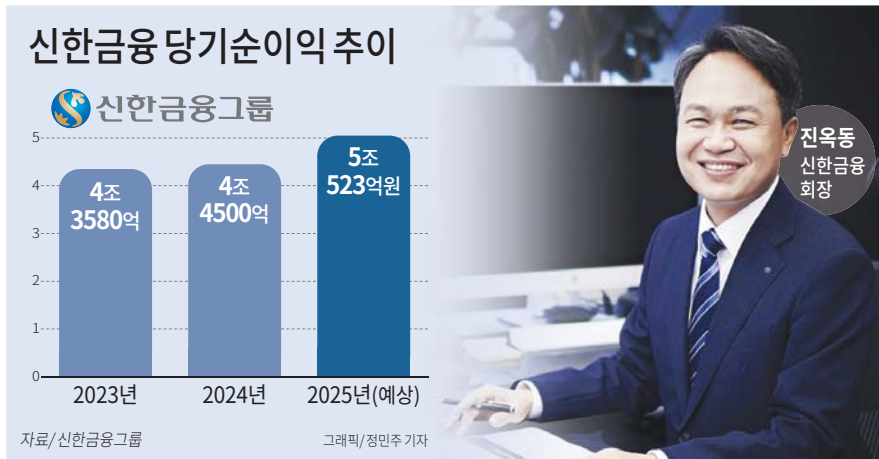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연임 탄력받는 진옥동… 관치 우려 속 신한금융 ‘승계 시험대’

신한금융 차기회장 인선 착수
진 회장, 실적 기반 연임 전망
비은행 성장·순이익 증가세
회추위, 12월 최종 후보 확정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관치 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검증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회추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내외부 풀을 포함해 승계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다.



곽수근 회추위 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절차 개시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 진 회장 연임 여부 촉각

내부에서는 진옥동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순이익

은 2023년 4조3680억원에서 2024년 4조4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신한금융의 올해 순이익을 5조523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13.58% 증가하는 수준이다.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비은행의 수익기여도가 약 44%로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비

이자이익은 지난 2022년 2조2710억원으로 떨어진 뒤 2023년 3조4300억원, 2024년 3조272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2조2044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4.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589억원으로 전년(2072억원) 대비 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순이익도 3129억원에서 3443억원으로 10.04%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회장은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거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주주환원 확대의지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연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회장 선임, 정부 의중 반영되나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관치 인사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정책과 금융 운용을 연계하려는 기조 속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정부

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정당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지분이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CEO 선임에 끼어든 명분이 없어서다.

신한금융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추위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한 상태다. 회추위 사무국은 최종 후보의 추천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위원회의 후보 심의 및 운영 지원,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한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오는 11월 말 압축 후보군(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초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는 적정성 심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회장이 확정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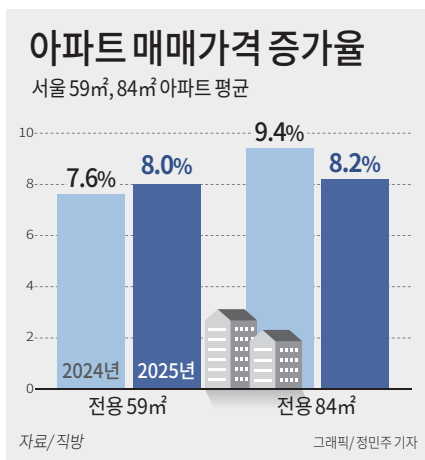
서울 24평 아파트 ‘10억 시대’… ‘국평’ 기준 바뀌나

전용 59㎡ 평균 매매가 10억5006만원
규제강화 속 중형평형 수요 지속 늘어

서울 아파트의 대표 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59㎡(약 24평)의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와 자금 부담 속에서도 중형 평형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약 8% 상승한 수치로, 3년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별로는 강남구(16.7%),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상



승세를 이끌었다.

강남구의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7억8706만원에서 올해 20억8570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개포동은 20억5302만원에서 25억2137만원으로 22.8% 급등했고, 삼성동(17.9%), 역삼동(1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권 13개 동 중 5개 동의 전용 59㎡ 평균가격이 20억원을 넘겼다.

마포구는 용강동(13억9316만원→17억90만원)의 상승폭(22.1%)이 두드러졌으며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와 ‘마포 용강삼성래미안’ 등 역세권 신축 단지의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중심으로 전용 59㎡ 평균가격이 13억1720만원에서 15억2588만원으로 2억원 이상 뛰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도봉구는 5억3974만원에서 5억4894만원으로 1.7% 상승하는데 그쳤고 중랑구는 5억8722만원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금천구는 6억913만원으로 1.8% 하락, 종로구도 11억3978만원으로 5.5% 낮아졌다. 두 지역 모두 역세권 신축보다는 저가 단지 중심의 거래가 많아 평균 가격이 낮게 집계됐다.

서울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원→2024년 9억7266만원(7.6%)→2025년 10억5006만원(8.0%)으로 매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59㎡ 평면은 공간 효율성이 높고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3040 실수요층과 3인 가구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

한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11억6597만원→2024년 12억7591만원→2025년 13억8086만원으로 올랐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둔화됐다. 이미 높은 가격대와 강화된 대출 규제, 그리고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4㎡는 여전히 가족 단위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평형이지만 가격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59㎡로 이동하는 실수요가 늘고 있다”며 “두 평형 모두 시장의 기준 역할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흐름은 실거주·환급성이 높은 중형 평면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서울 집값 35주 연속 상승세… 정부, 이번주 추가대책 발표

당정, 주택안정 근본대책 필요 공감
압구정 100억 이상 거래 등 과열 우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모니터링하며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오르는 등 오름폭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

했으며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향이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78%), 마포구

(0.69%), 광진구(0.65%) 등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는 공덕·도화동, 광진구는 구의·광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남권도 송파구(0.49%), 강동구(0.49%), 양천구(0.39%) 등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4억7500만원에 거래돼 두 달 전보다 1억7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도 9월 30억4000만원에 거래돼 전달보다 4000만원 올랐다.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으로 초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압구정 아파트 중 10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계약 해지를 제외하고도 8건에 달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KB금융그룹

6조6545억 규모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은 지난해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13일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및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측정된 사회적 가치 규모는 항목별로는 ▲환경(E) 3134억원 ▲사회(S) 2조7122억원 ▲지배구조(G) 및 기타 3조6289억원으로 측정됐다.

특히 사회(S) 부문의 경우,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융우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및 보증지원 출연 등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이끌었고,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성과가 반영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E)과 사회(S) 부문의 주요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하고 성과 측정 예시를 알기 쉽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는 KB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수입차, ‘효율 전쟁’ 본격화 연비·유지비 중심 소비 확산

전기·하이브리드 판매 급증세 지속
벤츠·BMW 밀리고 친환경차 부상
30~40대 중심 새 수입차 트렌드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판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판매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연비·유지비 같은 ‘효율’이 차량 선택의 최우선으로 자리 잡으면서 실속형·친환경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약 22만5202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11만3439대, 전기차는 5만6552대로 친환경차 비중이 무려 75.5%에 달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하이브리드 7653대 전기차 821대 ▲2월 하이브리드 1만3013대, 전기차 3757대 ▲3월 하이브리드 1만5643대 전기차 5658대 ▲4월 하이브리드 1만3691대 전기차 3712대 ▲5월 하이브리드 1만5027대 전기차 9533대 ▲6월 하이브리드 1만4916대 전기차 9125대 ▲7월 하이브리드 1만3469대 전기차 10만193대 ▲8월 하이브리드 1만3442대 전기차 10만855대 ▲9월 하이브리드 1만6585대 전기차 12만898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합리성’이다.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BYD가 가격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충전 인프라까지 확충되면서 실사용 불편이 줄어들었다.

또한 유지비 절감, 각종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며 ‘전기차는 비싸다’는 인식이



올해 수입차 시장은 전기차·하이브리드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판도 변화가 뚜렷하다. /뉴시스

빠르게 희석됐다.

실제 BYD 소형 SUV 아토3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200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역시 500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어 중형 세단급 소비자까지 흡수했다.

하이브리드는 ‘충전 스트레스’를 피하면서도 연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렉서스 ‘ES 300h’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정통강자들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고 혼다·볼보 등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시장공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수입차 시장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과거 벤츠·BMW 중심의 고급 세단이 시장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중심의 효율형 소비가 주도권을 쥐는 구도로 재편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층 변화도 눈에 띈다. 테슬라·BYD 구매자의 절반 이상은 30~40대로 과거 수입차 시장 주 고객이던 50대 이상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유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연비·유지비·효율이 차량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시형 소비보다 실속형·친환경 소비 증가도 기여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됐다”며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70%를 넘긴 만큼 향후 브랜드별 라인업과 가격 정책에서도 ‘효율 중심’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을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 향후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전자, 3분기 실적 선방 전장사업 수익성 ‘역대 최고’

관세 부담 속도 본업 견조
가전·전장 중심 수익 방어
인도 상장 추진, 체질 강화

LG전자가 대미 관세 부담 본격화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LG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 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역대 3분기 중 2번째로 높은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7.7% 상승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 부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 년간 성과가 낮은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생활가전이 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했고, 전장이 역대 최고 수준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사업과 미래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 우려를 상쇄, 기대치를 뛰어넘는 경영실적에 기여했다.

LG전자는 ▲전장, 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구동, webOS 등 Non-HW

▲온라인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성장’ 영역에 집중하며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달 인도법인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계획중인 만큼 사업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먼저 생활가전 사업은 미국 수출물량의 관세 부담,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 중이다. 볼륨존 영역에서도 안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인식했다. 사업 관점에서는 TV 판매경쟁 심화로 마케팅비가 증가했다. LG전자는 웹OS 플랫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수익구조 다변화에 집중한다.

전장 사업은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가 수익성에 크게 기여했다.

냉난방공조 사업은 상업용 공조시스템 및 산업·발전용 칠러를 앞세운 미래 사업기회 확보에 매진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엔솔, 美 구금직원 복귀… 정상화 착수

구금 사태 한달 만 인력 재투입
현지 공장 가동 재개 준비 돌입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건설 중인 배터리 합작공장 ‘HL-GA 배터리회사’에 필수 인력을 다시 투입하며 현지 사업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 한 달여간의 유급휴가를 마치고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복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 의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파견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LG CNS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협력사 역시 각 사의 지침에 따라

출장 인력을 선별적으로 재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합작공장장에서 자사 직원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되자 미국 내 모든 출장을 즉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직원들은 8일 만에 귀국했으며, 회사는 전원에게 추석 연휴 종료 시점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건강검진·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나 점검, 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면서 출장 재개가 가능해졌다.

/원관희 기자

한화, 美 육군 현대화 사업 진입 시동… K9A2 첫 공개

AUSA서 차세대 자주포 공개
자동장전 8×8 차륜형 플랫폼
155mm 모듈형 장약 현지화

한화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서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을 겨냥한 차세대 자주포와 탄약 생산 솔루션을 공개하며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AUSA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15일까지 열리는 AUSA는 미 육군 협회(Association of the U.S. Army)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지상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92개국에서 약 4만4000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한화는 279㎡ 규모의 대형 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맞춘 차륜형 K9A2를 선보인다. K9A2는 2022년 방위사업청과 체계개발 착수 이후 최종 성능검증 중인 최신 궤도형 자주포로 자동화된 탄약제작·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분당 최대 발사속



한화의 부스 전경.

/한화

도도 기존 6발에서 9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듈형 추진장약(MCS)의 현지화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화 MCS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 자동화 생산을 통해 품질 일관성과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의 155mm 포탄과 높은 호환성 및 발사 압력·사거리의 정밀 제어로 안전

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단거리 소형 AESA 레이더와 안티드론 등 미 국토안보 분야에 특화된 ‘다계층복합방호체계’를 선보인다. 해당 체계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체계로 공중 위협의 ‘탐지·식별·무력화’ 과정을 통합 운용해 미국 국경의 감시 경계 체계에 적용 가능하다.

단거리 AESA 레이더는 저고도 공중 위협체의 탐지·추적을 통해 단거리 방공무기체계(SHORAD: Short Range Air Defense)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센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함께 개발 중인 K9의 차세대 모델인 A2를 기반으로 미 육군에 최적의 자주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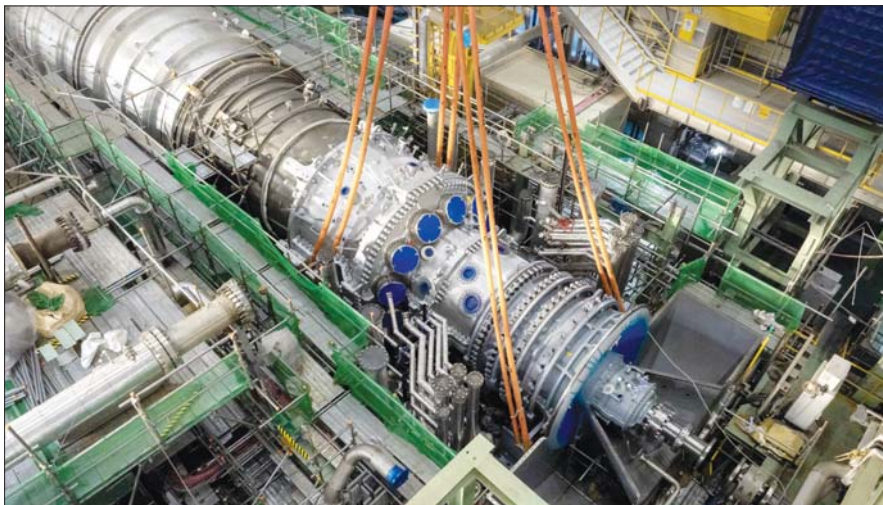
두산에너지빌, 국산 가스터빈 수출… 美 등 추가 수주 나선다

美 빅테크 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가스터빈 기술 경쟁력 인정 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할 것”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가스터빈 중주국인 미국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발전용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독자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을 미국에 처음 수출하는 사례로, 한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올라선 상징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가스터빈은 내년 말까지 납품될 예정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개발하고 제작한 380MW급 가스터빈 제품.

/두산에너지빌리티

가 지난 2019년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세계 다섯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이다. 당시 두산은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고온부 소재와 냉각 기술, 연소 제어 시스템 등을 독자 개발해 국내 발

전 기술의 지평을 넓혔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이상의 실증 운전을 거치며 고효율·고내구성을 입증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현재까지 국내외

에서 총 8기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미국 수출은 단순한 설비 판매를 넘어,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한국산 가스터빈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수주 배경으로 AI(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을 꼽았다. 최근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모가 급증하면서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구축이 가능하고, 전력 효율이 높으며, 운영 안정성이 검증된 가스터빈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두산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스터빈 모델을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빅테크 기업과 협력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계약이

그 첫 결실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두산에너지빌리티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DTS는 미국 내 가스터빈 유지·보수 전문 기업으로, 향후 두산이 공급한 가스터빈의 정비와 운영 서비스를 전담한다. 두산 측은 이를 계기로 미국 시장 내 가스터빈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추가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S에코에너지, 글로벌 IDC 인프라 사업 박차

인도네시아 IDC에 버스덕트 공급
동남아 주요국 전력 케이블 납품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IDC)에 첫 버스덕트(Busduct) 수출에 성공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생산법인 LSCV를 통해 인도네시아 바탐(Batam)에서 건설 중인 IDC에 버스덕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IDC는 50MW급 하이퍼스케일(초대형)로 베트남 내수에 머물던 버스덕트 사업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 건물 내부에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으로, 일반 전선 대비 에너지 손실을 30% 이상 줄이고 화재나 누전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대규모 IDC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꼽힌다.

LS에코에너지는 국내 버스덕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LS전선의 기술력



베트남 호찌민 LSCV에서 작업자가 버스덕트를 점검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

과 경험을 기반으로 지난 2018년 베트남 법인 LSCV에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플랜트와 고층빌딩, IDC를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왔다.

LSCV는 베트남 국영 통신사 비엠텔(Viettel)의 IDC에 버스덕트를 공급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IDC 프로젝트에도 전력 케이블을 납품하며 주요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동남아시아는 클라우드·핀테크 확산과 각국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IDC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핵심 시장이다. 특히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데이터센터 100% 소유가 가능해,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IDC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는 LS에코에너지의 큰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력케이블부터 버스덕트까지 송전과 배전을 아우르는 풀라인업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중기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24일까지 접수… “수출성과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주관단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1110억 달러(약 157조 580억 원)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

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분부터는 유망수출 컨소시엄 선정 시 추가 선발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대상으로 확정한다.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026년 지원대상인 일반수출 컨소시엄의 경우 다음연도(2027년) 1분기 전시회 등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 개최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AI,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 주관

수요기업 참여… 기술협력 모색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에 공동 주관기관이자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다펀트 기업과 기술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KA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가 주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다음날 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수요 기업인 KAI

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우주 ▲항공 ▲AI ▲자율 제어로 총 4개 분야에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000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기업은 KAI의 분야별 전담부서와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전략적 투자 검토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주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제행사 초청 ▲해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 지원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패밀리 기업 선

정 우대 및 애로기술 해결지원 ▲진주강소특구(경상국립대)의 경영 컨설팅 및 대중소 Meet-up 프로그램 참여 등 주관기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후속성장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차재병 KAI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KAI가 수요기업으로 함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KAI는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 문화를 개방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TV홈쇼핑 방송… 신규 CF 공개

귀뚜라미가 60년 난방 기술이 담긴 ‘3세대 카본매트 온돌’로 환절기와 동절기 난방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귀뚜라미는 3세대 카본매트 온돌 TV홈쇼핑 방송을 시작하고 2025년 신규 CF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GS홈쇼핑에서 13일과 22일, 31일에 각각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를 판매한다. NS홈쇼핑에서도 18일에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고급형 KMA 시리즈’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GS홈쇼핑에서만 누적 주문 고객 3만명, 누적 판매 금액 120억원을 돌파한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판매방송에 앞서 귀뚜라미는 ‘설명이 필요없는 60년 난방기술’을 주제로 신규 CF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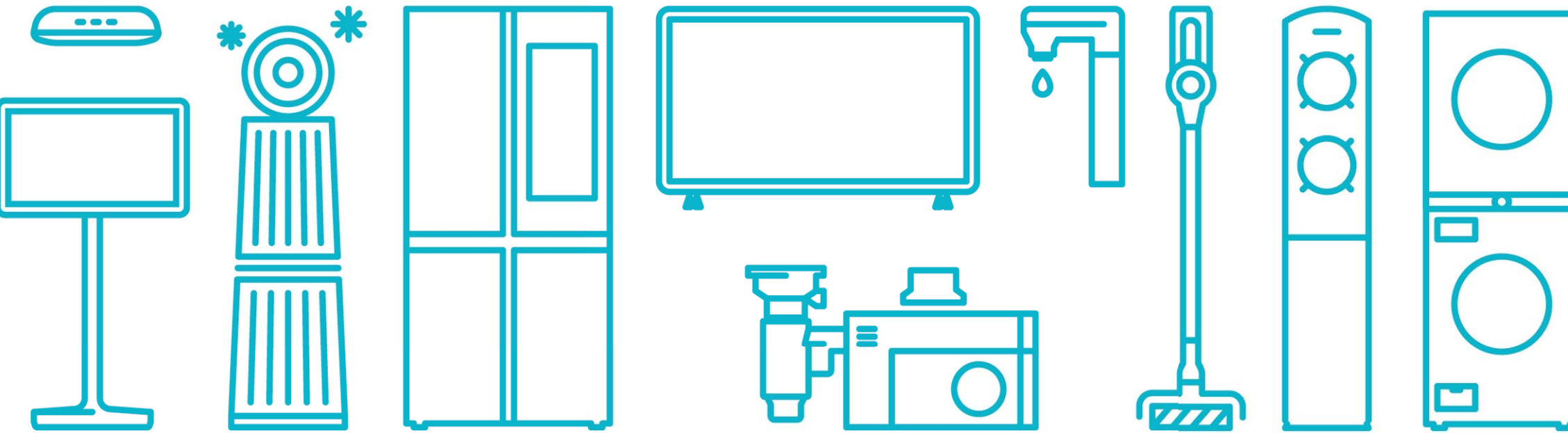


귀뚜라미의 3세대 카본매트 온돌 TV 홈쇼핑 방송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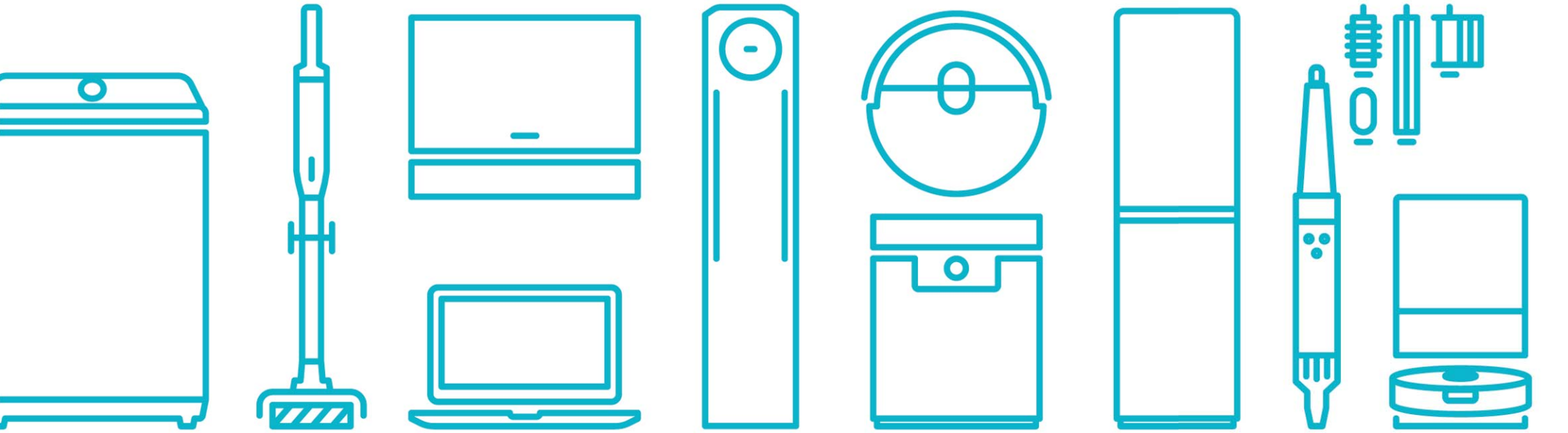
새롭게 공개한 광고는 전자파, 세탁, 환경호르몬, 전기료 등에 대한 걱정없이 3세대 카본매트에 편안하게 누운 배우 지진희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이어 ‘귀뚜라미 60년 난방기술로 만든 단 하나의 카본매트 온돌’, ‘설명이 필요없는 카본매트’ 등 자막과 배우 지진희의 내레이션으로 난방매트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의 위상을 설명한 뒤 ‘60년 기술을 믿으세요’라는 맺음말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김승호 기자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카카오, 계열사 30% 축소하고 ‘AI·톡 결합’ 차세대 서비스 집중

2년 만에 계열사 142개 → 99개
이달 말 ‘챗GPT 포 카카오’ 선포
주주가치 제고 등 책임경영 강화

카카오가 2년 만에 계열사 30%를 감축하며 ‘인공지능(AI) 중심 경영체계’로 전환을 마무리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재무 체질 개선을 통해 ‘AI 중심 경영체계’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13일 공개한 주주서한에서 “현재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99개이며,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CA협의체 사업총괄로 취임했을 당시 142개였던 계열사를 2년 만에 30% 이상 축소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번 조치를 “AI 시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185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특비즈니스 성장과 계열사 구조조정 효과가 맞물리며, ‘작지만 강한 카카오’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AI와 카카오톡을 결합한 차세대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고 있다. 10월 말 출시되는 ‘챗GPT 포 카카오’는 별도 앱 없이 카카오톡 채팅 탭에서 챗GPT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 출시되는 온디바이스AI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체 경량 모델 ‘카나나 나노’를 활용해 스마트폰 안에서만 작동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MCP(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와 에이전트 AI 플랫폼을 통해 외부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모든 이용자가 카카오톡 안에서 AI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주주가치 제고 ▲AI 인재 양성 ▲소상공인 지원을 축으로 한 ‘책임 경영’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총주주이익률(TSR) 연계 보상체계를 전 임원으로 확대했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원과 함께 AI 인재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통합지원 TF’를 신설해 파트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돕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비용 효율화를 병행하며 미래 성장에 집중할 재무 구조를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을 통해 또 한 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카카오프렌즈, 서울 도심 속 가을축제 연다

한강 드론쇼·바비큐 페스타 참여
IP 활용 드론쇼·포토존 등 운영

카카오프렌즈가 서울시와 함께 가을 맞이 한강 드론쇼·바비큐 페스타를 열어 도심 속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카카오는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가 가을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한강 드론 라이트쇼와 서울 바비큐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형 축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는 오는 18일 저녁 8시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1200여 대의 드론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IP를 활용해 가을 피크닉을 즐기는 라이언과 춘식이 등 다양한 이미지를 하늘 위에 구현한다. 음악과 함께 연출되



카카오프렌즈가 서울시와 함께 가을맞이 한강 드론쇼·바비큐 페스타를 연다. /카카오

는 라이트쇼는 관람객들에게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5일과 26일에는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서울 바비큐 페스타가 진행된다. 캠핑 콘셉트로 꾸며진 현장에는 대형 라이언과 춘식이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돼 시민들이 다양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팝업 부스 ‘카카오프렌즈, 서울가을’에서는 한정판 굿즈 증정과 참여형 이벤트가 열리며, 피크닉 매트·보냉백·담요 등 가을 테마 상품도 함께 판매된다.

/최빛나 기자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미드나잇 워커스’ 참가

위메이드맥스, 유저 피드백 수집

위메이드맥스가 파블리싱하는 ‘미드나잇 워커스’가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참가해 출시 전 글로벌 유저 피드백 수집에 나선다.

위메이드맥스는 위웨이티켓스튜디오

가 개발 중인 PC PvPvE 엑스트랙션 신작 ‘미드나잇 워커스’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출전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팀 넥스트 페스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이 매년 개최하는 온라인 신작 소개 행사로, 이용자들이 정식 출시

전 다양한 게임의 데모 버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다.

‘미드나잇 워커스’는 오는 11월 21일 스팀 오픈 액세스(앞서 해보기)를 앞두고 이번 페스트를 통해 최종 점검에 나선다. 이번 데모 버전은 지난 3차 글로벌 테스트와 게임스컴에서 선보인 빌드에서 개선된 최신 버전으로, 좀비 베리메이션 확장 등 전반적인 플레이 편의성이 강화됐다.

/최빛나 기자

크래프톤, 글로벌 크리에이터 캠페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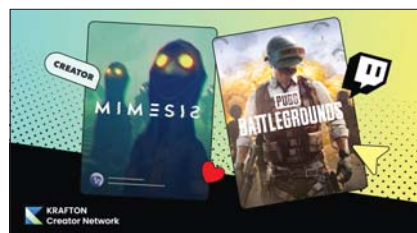
배틀그라운드·미메시스 신규 추가

크래프톤이 글로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KCN’에 ‘배틀그라운드’와 ‘미메시스’를 추가해 글로벌 수익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크리에이터 협력 프로그램 ‘크래프톤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에 대표작 ‘배틀그라운드’와 웰루게 임즈의 신작 ‘미메시스’를 신규 추가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KCN은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들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은 직접 참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형 생태계를 경험하게 된다.

대표 IP ‘배틀그라운드’ 캠페인은 오는 17일 트위치콘 개최를 기점으로 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에서 한정 진행된다. 참여 크리



크래프톤이 글로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KCN에 ‘배틀그라운드’와 ‘미메시스’를 추가해 글로벌 수익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크래프톤

에이터는 해시태그 #PUBGxKCNsquad를 사용하고, 주 1회 이상 관련 콘텐츠를 제작·홍보해야 한다. 또한 고유 코드를 입력한 서포터가 일정 기간 내 게임 내 결제를 진행하면, 크리에이터는 캠페인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

신규 합류한 ‘미메시스’는 AI 기술을 접목한 4인 협동 공포 게임으로, 언제든 팀원 중 한 명이 ‘미메시스’로 드러날 수 있는 설정 속에서 긴장감과 심리전을 동시에 요구한다. 미메시스 캠페인은 일리 액세스 출시일인 27일부터 시작되며, KCN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전용 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SKT, 자급제 서비스 ‘에어’ 개통 시작

출시 기념 다양한 혜택 제공

SK텔레콤은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어 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과 개통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신규 회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일 1만9000~3만 2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보너스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7GB 요금제는 월 1만 9000포인트, 15GB 요금제는 2만포인트, 30GB 요금제는 2만3000포인트, 71GB 요금제는 3만포인트, 100GB·무제한 요금제는 3만2000포인트가 제공된다.

적립 포인트는 월 5000원까지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편의

점·올리브영 등 1000여종의 제휴 상품 구매에도 활용 가능하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다.

또 7GB 요금제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에어는 eSIM(eSIM) 개통을 지원해 즉시 개통이 가능하며, 유심(USIM) 고객은 콕배움·당일택배·일반택배 중 선택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eSIM·유심 발급비와 배송비는 1회 무료다.

에어 가입 고객을 위한 만보기 이벤트도 운영된다. 앱 내 만보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한 달간 1000보 이상을 걸으면 1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최대 4개월 연속 참여 시 총 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대전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 진행

대흥동 일대 상생 뽕집 12곳 참여

LG유플러스는 대전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흥동 일대의 상생 뽕집 12곳과 ‘오늘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참여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의 명소 ‘성심당’을 중심으로 한 ‘뽕지순례’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대흥동 일대의 상생 뽕집 12곳과 ‘오늘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참여한다.

참여를 원하면 상생센터 대흥점을 방문해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 공식 영상을 시청하거나 앱을 설치한 뒤, 현장 직원에게 인증하면 된다. 익시오는 통화 녹음·요약 기능과 보이스 피싱 탐지 기능을 갖춘 AI 기반 통화 서

비스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뽕보관소 4시간 무료 이용권과 상생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권 2장이 제공된다. 쿠폰은 현장 QR코드를 통해 ‘뽕모았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령은 11월 2일까지,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뽕지순례 관광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참여자는 12개 상생 매장을 방문해 비치된 QR코드로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결제 없이 방문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스탬프 3개 이상을 모으면 서울우유 미니팩 1개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 상권과 협력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9만전자’ 차익실현 기회?... 전문가 “반도체株 매수” 목소리

〈삼성전자 주가 9만원〉

美·中 갈등-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SK 등 반도체 주가 급등락

“반도체 주가조정, 비중확대 기회”
상상인證, 삼성·SK 목표가 상향

직장인 A(36)씨는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400주를 주당 5만4000원에 샀다. 2200만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A씨는 2년 전부터 세금을 댄 월급 실수령액 450만원가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해 왔다. 이렇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1600여 주에 달한다. 그의 투자 전략은 적중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 주식이 6개월만에 ‘9만전자’ (주가 9만원)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고민에 빠졌다. 그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차익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서초동 삼성전자 전경.

/뉴시스

‘반도체 개미’ (반도체 투자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트럼프 트리거(자유무역→전략적 보호무역)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사이에서 급등락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답은 명쾌했다. 한 목소리 “지금 하락할 때 사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지금 가장 쌀 때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보다 각각 1.17%, 3.04%씩 하락했다. 미·중 갈등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증권가는 반도체 ‘매수’를 외친다. 상상인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6000원에서 11만원으로 44.7%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의 빠른 회복과 파운드리 부문 적자폭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주요 고객사 인증 확보와 제품 믹스 개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말했다.

상상인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기존 3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시장은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본다.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대한 수요가 커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도 전망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일 기준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시장예상치(컨센서스)는 10조 1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0조 9142억원으로 55.25% 성장이 예상된다.

이익 증가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코스피 반도체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 국면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주가는 최소 4%에서 최대 36% 뛴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규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중 간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됐고, 반도체 역시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주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조정 시 메모리 업체들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기반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가 조정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전망은 큰 틀에서 여전히 유효한 만큼, 주종 나탈 수 있는 잠재적인 주가·수급 변동성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14일), 해외에서는 TSMC(16일)와 ASML(15일)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사모펀드 논란 중심 증권사 국감 증인명단서 전원 빠져

20일 금융위, 21일 금감원 감사

올해 자본시장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홈플러스·MBK 사태, PF 부실, 밸류업 정책 등 굵직한 자본시장 현안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르지만, 정작 증권사는 책임 추궁의 무대에서 또 한발 비켜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열고 금융당국과 시장 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모펀드(PEF) 감독, 가상자산 규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이슈가 겹치며 정책 신뢰도와 감독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작진 롯데카드 대표 등 채택
막판 증인 추가 변수 생길수도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수장인 이덕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의 초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맞춰져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조작진 롯데카드 대표,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BK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단기 수익 중심의 차입매수(LBO) 구조가 기업 재무구조를 약

화시키고 장기 성장성을 훼손했다”며 “PEF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PEF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감독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금감원장에게는 이번 국감이 첫 시험대로, PEF 검사 실효성과 자사주 규제 일관성, 밸류업 공시의 실효성 등이 주요 질의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자본시장의 주요 축인 증권사는 올해도 증인 명단에서 전원 빠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논란의 중심에는 증권사의 운용·주관 기능이 자리하지만 CEO가 증인 명단에서 거둬 제외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 역시 주요 현안에 밀려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사는 국감 직전이나 기간 중에도 증인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와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최희문 당시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부회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대표 등이 추가 증인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황 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 속에서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보유비율 53.1%)을 자사주로 보유한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주관을 맡았던 점도 논란을 키웠다. 엄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운용, 판교 테크원타워 2조에 매각

평당 3320만원 판교서 최고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오피스 빌딩 ‘대어’로 꼽힌 판교 테크원타워(알파돔시티 6-2블록) 매각을 완료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카카오펙크-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컨소시엄과 매각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매각가는 약 2조원, 연면적 평당 거래가는 3320만원으로 판교 업무시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테크원타워를 본사 건물로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운용은 운용 분배금과 매각 차익을 합쳐 1조 1200억원의 이

익을 실현했다. 이는 펀드 설정액 4300억원 대비 약 2.6배 규모이며, 내부수익률(IRR)은 약 23%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에셋운용은 2017년 860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부동산 펀드를 마련해 알파돔시티 6-1블록과 6-2블록 7300평을 일괄 구매했고, 전체 연면적 약 11만평의 ‘웍드마크’ 복합업무시설 개발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통상 시행사와 건설사가 주도하지만, 이번 사업은 우리가 건축 기획, 설계 및 인허가, 시공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및 비용을 관리해 타 프로젝트보다 15~20% 절

감한 공사비(평당 510만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밖에 판교 테크원타워의 인접 부지에 11만평 규모의 새 복합 업무시설을 2027년 말 준공 일정으로 짓고 있고, 서울 성수동에서도 게임사 크래프톤의 사옥 건물을 2028년 초 준공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 최창훈 부회장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기업이 공존하는 4차 산업의 공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투자이념 아래 판교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입지의 장점을 잘 살린 랜드마크를 건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신탁

ACE 상장지수펀드 2종 합산 순자산 4.5조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대표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4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합산 순자산액은 전일(10일) 종가 기준 4조 578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4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처음 합산 순자산액이 4조원을 넘긴 후 20거래일 만이다. 각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 ETF가 2조 5202억원,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2조 5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연초 이후 각각 51.60%, 59.06% 성장한 규모다.

ACE 미국S&P500 ETF는 지난 2020년 8월에 상장한 상품으로, ‘S&P500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허정윤 기자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해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활동 마무리

경영전략 등 아이디어 9건 제안

유안타증권은 지난 5월초 출범한 ‘미래성장 TF’의 공식 활동을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 최종 보고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5월 7일 출범한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는 입사 10년 미만의 직원들 중 최종 선발된 21명의 직원들이 중심이 돼 경영전략과 혁신사항을 발굴

해 경영진에 제안하는 조직이다.

윌즈펍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활동 보고는 ▲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전략 ▲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전략 ▲ 모바일 기반 고객 경험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고, 테스크포스(TF) 참여 직원들은 경영전략, 조직문화, 브랜드 마케팅,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건의 ‘YSK 경영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쿠팡이츠 ‘할인 전 수수료’ 제동 공정위 “입점업체 이중부담 개선”

할인비용까지 수수료 부과 논란
배달앱 약관 첫 시정권고 조치
배달의민족, 10개 조항 개선 착수
중기부 협업체 플랫폼 점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해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왔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의 상품을 5000원 할인해 판매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수수료(7.8%)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560원을 부과해왔다. 이는 할인 후 기준(1170원)보다 390원이 많고, 실질 수수료율이 10.4%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보고,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라며 “입점업체가 할인비용과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60일 내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관법상 시정명령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쿠팡이츠와 배민의 가게 노출거리 제한, 대금정산 유예, 광고료 환불 제한, 일방적 약관 변경 등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두 플랫폼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플랫폼은 우천·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금정산 유예 사유 명확화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정산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판매대금 일부 예치 조항 삭제 ▲약관 불리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등도 개선

한다.

쿠팡이츠는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고쳐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에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삭제했다. 배민도 배달앱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를 추가로 정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가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심사는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며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체가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 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 9000억원으로,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지속 증가 추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불·호우 피해지 중심 ‘농촌 재생’ 지원

농식품부, 농촌정비사업 9곳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재생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산불과 호우 피해가 컸던 포천·영양·청송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주민 생활공간 회복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구당 평균 100억 원(5년간)이 투입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선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충북 증평군 화성리지

구 ▲청주시 금대지구 ▲충남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 ▲보령시의평지구 ▲경북 청송군 시랑지구 ▲영양군 석보·입암지구 ▲전남 해남군 남창지구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호우피해지역, 영양군·청송군은 산불피해지역으로, 주민 주거지 인근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철거 및 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쉼터·주거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천 내촌지구는 폐축사 1개소와 주민공공시설 2개소를 정비해 복합문화체육단지와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영양 석보면은 폐교·방치시설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과 농기계 임대·수리시설을 들일 예정이다. 청주시 북이면은 축사 3개소와 폐축사 3개소를 정비해 마을공원 및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재근로자·가족 2300명 숲속서 심리 회복

근로복지공단, 치유 프로그램 1년 성과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1년여간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과정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총 85회 운영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는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했다. 예상보다 높은 수효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나,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산림치유가 심리회복과 재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만큼 2026년에는 ▲유족의 상실감 극복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부담 큰 수도권에 ‘영농태양광’ 시동

농식품부, 12월 중 시범사업지 선정
발전수익 지역공동체에 환원
의무영농 실태 점검 병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13일 “전력계통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발전용량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 내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을 실증하는 성격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차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영농형태양광 모습.

/뉴시스

된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제도 취지인 ‘의무영농’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10~11월 후보지 발굴 및 마을 구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 자문, 사업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농촌소득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박해정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완다 고용서비스 현대화, 한국이 돕는다

고용정보원, 현지 정책관계자 초청

한국고용정보원은 르완다의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고위 정책관계자를 초청,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프랑수아 응고보카(Francois Ngoboka) 르완다 노동부(MI FOTRA) 차관보를 비롯해 노동부 및 직업훈련청 등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간부 6명이 참여한다.

고용정보원은 2024년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르완다 통합적 일자리 정보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용24 플랫폼,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JobCare) 등 첨단 고용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현지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고용정보원 본원을 비롯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월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직업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

이들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청소년 진로체험 ▲산업별 인력수요 분석 및 직업정보 개발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고용정책 운영 경험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정보원이 자체 개발·운영 중인 AI 맞춤형 상담 및 경력개발 서비스의 시연과 현장 참관도 포함돼, 참가자들이 실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오답투성이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파르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부산전국체전 성화봉송 첫 출발… 16개 구·군 달린다

성공개최 기원 성화 합화·출발식 오는 17일 전국체전 개막식서 점화 4일간 1200여명 주자들과 한마음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성화 합화 및 출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금정산 고당봉(희망의 불), 유엔평화공원(평화의 불), 가덕도 연대봉(비상의 불), 강화도 마니산(화합의 불) 등 4곳에서 채화된 불꽃을 하나의 불꽃으로 합화한 이후 성화 봉송의 첫 출발을 알렸다.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 겸 시 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김석준 시 교육감, 장인화 시 체육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합화, 성화봉 점화 및 최초 봉송 주자 인계, 어린이 치어리딩단 축하공연, 봉송 주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합화 및 출발식이 열린 13일 부산 연제구 시청 시민광장에서 성화 봉송 첫 주자인 권중현 원로 체육인(1970년 방콕아시안 게임 사이클 은메달리스트) 등이 성화를 들고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출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청 1층 성화보존대에 보관된 성화는 각 채화지의 최종 주자들이 들고 행사장에 입장한 후, 합화자로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 겸 시 장애인체육회장(화합의 불), 안성민 시의회 의장(평화의 불), 김석준 시 교육감(희망의 불), 장인화 시 체육회장(비상의 불) 등에게 인계되었다.

성화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불꽃으로 하나의 성화로 합쳐지고, 합화된 성화는 이날 시청 앞을 출발해 연제구를 시작으로 4일간 1200여 명의 주자들과 함께 16개 구·군을 달리게 된다.

이후 부산 시민의 체전 성공 염원을 담아 오는 17일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성화

대에 점화돼 체전 기간 함차게 타오를 예정이다.

성화 봉송 시작을 알리는 첫 주자는 권중현 원로 체육인(전 부산시체육회 부회장,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 사이클 은메달리스트)이 맡고, 이어 차세대 체육인을 대표하는 부산의 대표 꿈나무 이건호(대신중3, 육상)와 황철후(광남초6, 수영) 두 선수가 성화 봉송 부주자로 참여한다.

박형준 시장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이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했다"며 "오늘 첫 출발을 시작한 성화는 4일간 16개 구·군, 1200여 명의 봉송 주자들이 체전 성공 염원을 담아 한 마음으로 달리게 되며, 하나로 타오르는 성화가 국민 화합의 상징이자 생활체육 천국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外人 취업비자 시범사업 실시

광주시가자동차부품제조 분야외국인 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취업비자(E7-3)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7-3 비자는 국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 취업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며 광주시는 지난 9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6개사 122명의 인력 신청을 받았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순천시

아부다비서 생태도시 위상 높여

순천시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 등 방문단 일행은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IUCN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와 교류를 넓혔다.

행사장에서 순천만 복원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전봇대 철거, 국가정원 및 오천그린광장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며 순천이 자연기반해법(Nbs)을 실천한 대표 도시임을 설명했다.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긴급돌봄 'K보듬 6000' 가동

경주시는 이달부터 영유아 긴급돌봄 서비스 'K보듬 6000'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맞벌이와 야간근무,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 또는 일시 보육 시스템이다.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며, 건천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 시간은 평일 오후 4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경주에 주소를 둔 보호자는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

‘제17기 귀어학교 입학식’ 열어

경남도는 13일 오전 통영시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관에서 '제17기 경상남도 귀어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7기 모집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35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남성 19명, 여성 1명이 최종 선발됐다.

연령대는 30대 7명, 40대 5명, 50대 8명으로 청년층이 60%를 차지했다. 지원자의 57.1%가 다른 시도 출신이다.

경남 귀어학교는 매년 귀어 희망인들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을 병행해 어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진주시-투레트시, 미술교류 확대 논의 “‘김해국가유산야행’서 가을밤 즐겨요”

〈프랑스〉

투레트시 부시장, 남강유등축제 방문

진주의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를 계기로 프랑스 투레트시 부시장 일행이 진주시를 찾아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모로 투레트시 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3일부터 6일까지 진주에 머물며 유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하고, 지역 주요 문화시설을 둘러봤다. 투레트시는 지난해 진주시와 우호도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의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의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문화예술 인프라와 두 도시 간 미술 교류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관람 및 교류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조규일 시장과 '세바스티앙 모로' 투레트 부시장인 진주성 중영에서 간담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올해 3월 '투레트시 바이올렛축제'에서 4000개의



프랑스 투레트시 부시장 일행이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계기로 진주시에 방문했다.

바이올렛 꽃으로 장식한 진주시의 관광캐릭터 '하모'와 진주를 대표하는 '유등'을 소개한 것을 비롯해 7월 이상자 화백의 '이젤'이 프랑스에서 진주로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세바스티앙 부시장은 이성자 화백 아틀리에의 프랑스 정부 지정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선정에 따른 현판식에 조규일 시장의 축하영상과 진주시 우수 공무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수로왕릉·수릉원 일대에서 진행

김해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수로왕릉과 수릉원 일대에서 '2025 김해국가유산야행'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야행은 '金海, 빛을 담고 그 리다'를 주제로, 단순히 유적을 밝히는 축제를 넘어 수로왕과 허왕후의 서사와 김해 문화의 일상이 빛으로 어우러진 특별한 도심의 풍경을 담아낸다.

수로왕릉과 고분군이 이어진 고즈넉한 야경, 국가유산 송선전 제례, 가야 복식과 런웨이 퍼포먼스는 김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이며, 무엇보다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

행사는 전통적인 '8夜(야경·야로·야설·야사·야화·야시·야식·야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야경은 수로왕릉과

고분군의 고즈넉한 밤 풍경을 빛으로 연출하며, 야로는 배우 도슨트 해설과 천문관측 투어를 제공한다. 야설은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를 통해 가야사의 가치를 전달한다. 야시는 가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화는 전통 등불과 한지 조형물을 결합해 빛의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18일 밤 수로왕릉 일대 1000대 드론이 밤하늘에 꿈처럼 떠오르는 구름물고기, 왕릉을 화폭 삼은 미디어파사드 등을 활용한 런웨이 형식의 퍼포먼스가 새롭게 선보인다.

수로왕릉은 대한민국 사적 제73호로 가락국을 건국한 왕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이다. 인근에 있는 가야 왕들의 무덤인 대성동고분군은 세계유산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 운영

산림관광 공동마케팅 첫 사업

경북도가 25일부터 백두대간권의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 도내 6개 시·군과 함께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건강을 높이기 위한 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는 이들 백두대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하는 산림관광 공동마케팅의 첫 사업이다. 이 행사는 이들 시·군을 돌며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 12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각 지역의 코스는 10~15km 내외로 매회 약 4시간 30분 이상 오르막과 좁은 길이 포함된 중상급 수준의 트레일로 돼 있다. 참가자들은 모든 코스를 트레킹 전문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시작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

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전 구간을 안전하게 걷고 6개 지역의 형태를 본뜬 퍼즐형 스티커를 제공 받는다.

모든 코스를 완주해 조각을 모아 백두대간의 지도를 완성하면 기념 완주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주 보문골프클럽, 라운딩 중 농약 살포

관계자 “정기 방제 작업일 뿐”

경주시 보문골프클럽이 고객이라운드를 즐기던 중 대량의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보문골프클럽은 고객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대피 조치 없이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객들은 눈과 목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정기 방제 작업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운딩 중이던 손오씨(65·대구)는 “세

컨드 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코스 관리 차량이 불과 몇 미터 앞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농약을 뿌렸다”며 “고객이 있는 바로 옆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골프장은 처음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약 성분 중 일부는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알레르기 반응,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 도중 살포된 농약은 이용객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실적부진’ 스타벅스, 북미 구조조정 리워드 개편 등에 국내사업 ‘전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상황

글로벌 커피 공룡 스타벅스가 잇단 실적 부진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국내 스타벅스 코리아의 운영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는 북미 일부 매장 폐쇄와 약 900명의 비 매장 직군 감원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초 단행한 1000여 명 해고에 이은 추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본사 차원의 조직 효율화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스타벅스는 전체 구조조정 비용 중 90%가 북미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약 1억 5000만 달러는 인력 감축 관련 비용, 8억 5000만 달러는 매장 폐쇄 등 운영 재편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회사는 올해 말 기준 북미 지역 매장을 약 1만 8300개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인 재확장에 나설 계획도 내놨다.

브라이언 니콜스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매장과 고객에 더 가까운 곳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강하고 회복력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가 입증된 부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겠다”며 운영 효율화와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예고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본사 직원 주 4일 출근제 복귀를 명령하고, CFO·COO·글로벌 브랜드 책임자 등 새 경영진을 영입하며 내부 재정비에 나섰다.

스타벅스의 지난 2분기(4~6월)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47% 급감했다.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동일 매장 매출이 2% 감소하며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와 원재료비, 외식 경기 둔화 등이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했다는 평가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1조5574억 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 매출 3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메트로 DB

1.4조 규모 구조조정 계획 발표 비용 중 90% 북미사업서 발생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친화 전략 진동벨·키오스크 도입 등 변화 매장 수 2000개 넘어 세계 3위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이 향후 스타벅스 코리아의 운영 전략이나 본사 지원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관계자는 “북미 지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부문 내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매장 수도 지난해 말 기준 2000개를 넘어 일본을 제치며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1조5574억 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 매출 3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0.5% 줄어든 754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4.8%로 전년 동기(5.1%)보다 0.23%포인트 하락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방어가 쉽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타벅스는 진동벨과 키오스크 도입, 할인 프로그램, 리워드 개편 등 고객 친화 전략을 본격화하며 매장 운영에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스타벅스는 전국 150여 개 매장에 진동벨을 시범 도입했고, 일부 매장에는 키오스크 설치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제도도 개편했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웰컴·그린·골드 등급 순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개편은 기존 별 쿠폰 교환이 제한됐던 그린 등급 회원이 적용한 별로 무료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고, 그린·골드 등급 회원들이 적용한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음료뿐 아니라 푸드, 기획상품(MD)으로 넓어졌다. 골드 회원 등급 기준도 기본 별 30개 적립에서 25개 적립으로 완화했다.

관계자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맞는 운영 효율화와 고객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주문, 리워드, 매장 경험 개선 등 한국 소비자 특성에 맞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경쟁보다는 브랜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커피 시장 내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포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닷컴, 만화 ‘영심이’로 신선식품 홍보

쓱닷컴·SNS 채널에 영상 공개

SSG닷컴이 추억의 만화 캐릭터 영심이·경태를 앞세워 신선식품 브랜딩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쓱닷컴 및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영상이 공개된다.

이번 캠페인은 ‘신선함에 설레다’를 주제로, 영심이와 경태 캐릭터를 통해 이마트몰 신선식품의 경쟁력을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의 표정과 대사에 맞춘 작화컷을 활용해 친근함과 함께 레트로 감성을 더했다.

영상 공개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주요 역사에 게재한 스크린 도어 광고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증샷 후기가 공유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



SSG닷컴이 영심이와 경태 캐릭터를 앞세워 신선식품 브랜딩 캠페인을 전개한다. /SSG닷컴

고 있다고 SSG닷컴 측은 밝혔다.

SSG닷컴은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이달 26일까지 행사도 연다. 캠페인 영상에 댓글을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발뮤다 스피커, 스탠리 텀블러, 스타벅스 커피쿠폰 등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쿠팡, 26일까지 ‘키친 슈퍼 워크’ 진행

포트메리온·도블레 등 대거 참여

쿠팡이 이달 26일까지 주방 인기 상품을 모은 ‘키친 슈퍼 워크’를 진행한다 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의 주방용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여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포트메리온, 바겐슈타이거, 도블레, 하이드로 플라스크, 퀸센스 등 국내외 인기 주방용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포트메리온 보타닉가든 스케치북 쿠키

패 중점시세트 ▲바겐슈타이거 303 드라이 스텐 가위 ▲도블레 칼집나지 않는 항균 도마 ▲하이드로 플라스크 올라운드 트래블 텀블러 리프 핑크 ▲퀸센스 사이니 통5중 스텐 공중팬 등이 준비됐다.

쿠팡은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테마관도 마련했다. 특히 ‘쿡딜! 오늘만 산다’ 테마관에서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매일 새로운 상품을 과격적인 할인가에 선보이는 ‘1D AY 특가’를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GS25 ‘네고시앙 다이렉트’ 누적매출 5억

네고시앙 맞손… 사전 예약 서비스

편의점 GS25의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가 프랑스 와인 도매상 ‘네고시앙’과 손잡고 선보인 사전 예약 서비스 ‘네고시앙 다이렉트’가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5억원을 돌파했다. GS25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전략이 성공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네고시앙 다이렉트’는 고객이 앱에서 와인을 예약하면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GS25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론칭 이후 7개



폴 자블레 에네 에르미타주 라 샤렐 2003 와인을 들고 있는 모습. /GS25

월간 총 12회의 기획전을 통해 400여 종의 하이엔드 와인을 선보였으며, 와인25플러스의 2030 신규 고객이 2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손종욱 기자

롯데온 “브랜드 ‘찜’ 하고 엘포인트 받아요”

오는 22일까지 ‘온쇼페’ 진행 포인트 지급·브랜드 특가 등 혜택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오는 22일까지 ‘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를 진행한다 고 13일 밝혔다. ‘4300만 팬덤을 위한 브랜드 콘서트’를 주제로, 엘포인트(L.POINT) 회원들을 위한 포인트 지급과 브랜드 특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올론 포인트 쇼’ 이벤트다. 매일 접속 시 최소 500 포인트부터 최대 3만 엘포인트까지 무작위로 지급하며, 첫 구매·장기 미구

매 고객은 기간 중 1회 최대 5만 엘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고객에게 20% 상품 쿠폰, 최대 30만원까지 할인되는 10% 쿠폰, 롯데백화점 상품 전용 최대 5만원 할인 쿠폰, 카드 결제 시 최대 2만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브랜드 콘서트’ 콘셉트에 맞춰 오는 11월 30일까지 49일간 매일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해 최대 혜택으로 선보이는 브랜드판타지도 연다. 폴로랄프로렌, 입생로랑, 아벤느, 크로커다일 감탄브라, 빈폴패밀리, 어그, 쉬즈미스·리스트, 티아이다이, 제로스트릿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하며, 참여 브랜드를

‘찜’하면 엘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챌린지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타임 특가, 매일유업·상하농장 스케치 럭키박스 등 롯데온 단독 기획 상품도 선보인다.

롯데온 남지형 마케팅운영팀장은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특가 라인업으로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온쇼페’를 준비했다”며 “매일 롯데온에 접속할수록 다양한 특가를 만나볼 수 있고 엘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로 롯데온의 든든한 팬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U, 美 와이너리 ‘생 미셸’과 협업

‘음mmm! 생 미셸 샤도네이’ 선택

편의점 CU가 미국 워싱턴주 유명 와이너리 ‘생 미셸’과 협업한 ‘음mmm! 생 미셸 샤도네이’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CU의 자체 와인 브랜드 ‘음mmm!’의 16번째 상품으로, 성장하는 가성비 와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흡술 문화 확산으로 편의점 가성비 와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C

U 측 자료에 따르면 ‘음mmm!’ 와인 시리즈 매출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신장했으며, 지난해 출시한 ‘음mmm! 카베르네 쇼비농 더블오크’는 현재 CU 와인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신제품은 1934년 설립된 워싱턴주 1위 프리미엄 와이너리 ‘생 미셸’과 협업해 만들었다. ‘음mmm! 생 미셸 샤도네이’는 부드러운 산도와 복숭아, 흰 꽃향이 특징인 화이트 와인이다. /손종욱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VOS Discovery R&D센터’ 개소

오가노이드 대량생산 기반 구축…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

호치민시 과기부 차관 등 참석
토종 오가노이드 기술 서비스화
“동남아 바이오 R&D 거점 육성”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베트남을 거점 삼아 토종 오가노이드 기술을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본격 확장에 나선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베트남 자회사 VOS Discovery(디스커버리)가 지난 7일 호치민시 투득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개소는 단순한 연구시설 오픈을 넘어, 한국이 축적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베트남에 뿌리내리고 이를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센터가 들어선 투득은 최근 호치민시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베트남국립대를 비롯한 대학과 병원, 과학기술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학문적 교류와 연구 협력에 유리하고, 앞으로 신공항과의 접근성, 사이공 하이테크파크(SHTP)와



지난 7일 호치민시 투득 지역에서 열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베트남 자회사 VOS Discovery(디스커버리)의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인접성, 도시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R&D센터에서 개발되는 주요 품목들은 향후 SHTP 내 생산시설에서 대량 제조될 예정인데, 이는 SHTP가 삼성, 인텔 등과 같은 글로벌 최첨단 기업에게만 생산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VOS Discovery R&D센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내세웠다. 첫째, 한국의 앞선 오가노이드 기술을 현지에도 도입해 연구자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한다는 것. 둘째, 오가노이드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와 산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셋째, 장기적으로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연구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글로벌 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현지와 한국 양측인

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베트남 측에서는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 베트남국립대, 베트남 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코참(KOC HAM), 아시아문화교류재단,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측은 이번 R&D센터 개소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VOS Discovery는 베트남 내 연구 협력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바이오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건구 VOS Discovery 법인장은 개소식에서 “이번 센터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바이오 연구개발을 이끄는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 뷰티 페어 개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오는 11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채널과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자음생 럭셔리 뷰티 페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음생 크림은 설화수 대표 제품으로, 피부 자생력에 중점을 둔 아모레퍼시픽만의 인삼 연구결과가 집약됐다.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구축한 ‘진세노믹스’를 처방했다. 희귀 인삼 사포닌 성분을 6000배 농축한 이 핵심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탄력과 밀도를 높여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음생 크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유통사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백화점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자음생 특화 세트도 함께 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LG생건-엘지유니참
라이언 ‘안심숙면팬티’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그룹의 합작회 엘지유니참은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쏘피 안심숙면팬티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리대 브랜드 쏘피의 팬티형 생리대 ‘안심숙면팬티’에 라이언과 춘식이 디자인이 적용됐다. 중형·대형·특대형 등 각 사이즈별 포장과 함께 라이언과 춘식이 편안한 밤을 보내는 모습을 꾸몄다.

안심숙면팬티는 샘 걱정을 줄여 숙면을 돕는 제품이다. 신체 곡선에 딱 맞는 볼록맞춤 구조로 설계돼 생리혈을 빈틈없이 흡수한다. 소프트 이너 커버는 속옷처럼 부드러운 착용감까지 갖췄다. 허리 부분의 360핏 신축 허리밴드는 전방향 밀착력을 높여 안정감을 더한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

동아제약은 국내 균일가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은 트러블 전문 브랜드 파티온의 다이소 전용 신규 브랜드다. 트러블 고민이 시작되는 청소년층에 적합한 제품을 선보이며 트러블 진정을 본격 관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학업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세럼 미스트’, 트러블 부위의 긴급 진정을 돕는 ‘스팟 젤 크림’ 등을 출시한다. 트러블로 인한 피부 흔적을 개선해 주는 흔적 앰플과 흔적 수분 크림, 국내 최초 여드름 완화 기능성 패드인 트러블 패드(4매입), 트러블 피부 전용 세럼 클렌저 등도 선보인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리바로젯, 당뇨병 환자군 LDL-C 개선”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이상지질혈증 유효성·안전성 확인

JW중외제약은 리바로젯을 복용한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군에서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다.

JW중외제약은분당서울대병원연구팀과 함께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제2형 당뇨병 동반/비동반 환자를 대상으로 리바로젯 장기 복용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빅토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리바로젯

/JW중외제약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며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LDL-C)보다도 크기가 작고 밀도는 높은 ‘sd-LDL-C’는 관상동맥 심질환 유발 등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지질 이상에 있어서 리바로젯은 LDL-C 수치를 강력하게 낮추는 동시에 혈당 안정성까지 입증한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 분석에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824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뇨병 동반 환자는 408명, 비당뇨병 환자는 416명이었다.

당뇨병 동반 환자군의 LDL-C 수치 중간값은 리바로젯 복용 전 134mg/dL에서 48주 후 66mg/dL로 줄었다. 당뇨병 비동반 환자군의 수치 역시 159mg/dL에서 76mg/dL로 개선돼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sd-LDL-C 수치 중간값의 경우, 당

뇨병 동반 환자군에서 리바로젯 복용 전 41.45mg/dL를 기록했으나 복용 24주 후 23.62mg/dL로 떨어졌다. 당뇨병 비동반 환자군은 47.00mg/dL에서 25.54mg/dL로 낮아졌다.

또 투여 기간 동안 공복혈당(FPG)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당뇨병 환자에서도 혈당 안전성이 확보됐다.

JW중외제약은 향후 후속 연구를 지속해 장기 임상 데이터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리바로젯은 당뇨병 환자들의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 ‘아메조스바테인’ 위탁생산

〈대상포진 백신〉

허은철 대표 “백신사업 지속 확장”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와 대상포진 백신 ‘아메조스바테인’의 위탁생산(CMO) 권리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GC녹십자는 아메조스바테인의 상업화 물량 일부를 생산하게 된다.

현재 큐레보는 만 50세 이상의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아메조스바테인 확장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해당 임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상용화하는 등 후속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메조스바테인은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다. 합성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국소적인 주사 부위 통증과 전신 반응이 일반적인 백신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약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사진)는 “이번 계약은 GC녹십자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글로벌 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약품, 나이스신평 ‘AA-’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AA-’(안정적)를 획득했다. 기존의 ‘A’ 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23년 6월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정기평가 이후 2년만의 상향 조정이다.

13일 한미그룹은 “‘AA-’ 등급은 국내 신용등급 체계상 매우 우량한 수준으로, 한미그룹의 견고한 재무안정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5년 반기 결산 재무제표 기준일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한미사

이언스는 국내 제약업계 주요 지주사중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 같은 평가 근거로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높은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온라인팜·제이브이엠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 등을 꼽았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혁신신약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나아가 주주와 고객, 모든 이해관계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보다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강연	14:50~15:3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5:30~16:1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16:10~16:50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연구과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누가 2025'서 K-푸드기업 존재감 각인
대상이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인 '아누가(ANUGA) 2025'에서 글로벌 무대 속 K-푸드 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대상은 지난 4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종가'와 '오푸드'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 부스를 운영했다. 회사는 일 최대 3000명, 총 1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공영홍쇼핑, '공공언어 평가' 전제 1위 차지

공영홍쇼핑이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천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지난해 공공언어 평가에서 공영홍쇼핑은 대상 기관 중 전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5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공영홍쇼핑 김영주 대표이사(오른쪽)가 직무대행(오른쪽)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공영홍쇼핑



오비맥주, 서울 잠실서 '건전음주 캠페인' 실시

오비맥주가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을 맞아 10월 한 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김병훈 영업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서울 잠실 상권 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비맥주

휴젤

캐리 스트롬 글로벌 CEO 영입



휴젤이 세계적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전문가 캐리 스트롬을 글로벌 최고경영책임자(CEO·사진)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휴젤의 글로벌 사업 전반을 이끌게 된 캐리 스트롬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에서 수석 부사장이자 엘러간 에스테틱스 글로벌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2011년 엘러간(현재 애브비)에 처음 합류한 뒤 엘러간이 보툴리눔 독소 '보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주비덤' 등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캐리 스트롬 신임 CEO 영입은 최근 장두현 한국 CEO 취임에 이은 것으로 휴젤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기획조사팀장 정진우

부음

▲권용욱씨 별세, 안덕규씨 부인상, 안종호·종훈씨 모친상, 원은자(TV조선 보도위원실)·채은영씨 시모상=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15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일산자연애송수목장. 02-2072-2091

(주)한화-나눔비타민, 인천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따뜻한 한 끼 캠페인' 협약으로 2000만원 규모 식사쿠폰 제공

(주)한화는 기부 플랫폼 운영사 나눔비타민과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결식우려아동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따뜻한 한 끼 캠페인'은 가정 형편 등으로 끼니를 거르기 쉬운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약 2000만원 규모의 식사쿠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나눔비타민이 운영하는 복지 플랫폼 '나비암'을 통해 다양한 제휴 매장에서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영찬 (주)한화 인사지원팀장(좌측 세번째)과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좌측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한화

(주)한화는 임직원들이 직접 제휴매장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응원 편지를 전달하는 '착한가게 응원 캠페인'을 병행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에도 힘을 기울인다.

(주)한화이영찬인사지원팀장은“이번 협약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진, '창립 80주년' 글로벌 캠페인

전 세계 임직원 함께한 영상 공개
앞으로 100년 기업 도약 다짐 나뉜다

한진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임직원이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13일 한진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국내외 주요 거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한진은 국내에 메가허브를 비롯한 전국 택배위크, 인천·부산항 등 주요 항구에 항만 물류 거점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22개국 42개 지역에 종합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영상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포함한 국내외 거점 임직원들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참여해 'Better Future with Better Logistics(더 나은 물류로 더 나은 미래를)'라는 공통의 메시지를 담았다.



한진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임직원이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캠페인 영상은 숏폼(Short-form) 콘텐츠로 제작해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과 일반 시청자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진은 지난달 2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편'을 시작으로 국내외의 주요 거점 25곳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영상 캠페인은 전 세계 임직원이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80년 역사를 이어온 회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안동 산불 피해목, APEC 가구로 변신

코아스, APEC 정상회의 협찬
프리미엄 가구에 피해목 적용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숲이 불타던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목이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프리미엄 가구로 변신해 세계 정상들을 맞이한다.

APEC 정상회의의 공식 가구 협찬사인 코아스는 약 90%가 소각 처리되는 산불 피해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성공, 이달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협찬 프리미엄 가구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 회의장과 정상 집무실, 귀빈 대기실 등 주요 공간에 친환경 프리미엄 가구 17종 등 총 142점(약 3억원 상당)을 협찬하며 전 세계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을 '숲의 재탄생'으로 꾸민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앉게 될



APEC 정상 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귀빈실에 제공될 친환경 프리미엄 가구(왼쪽)와 각국 정상들이 앉게 될 천연 대나무 소재로 제작한 '마론(MARUON)' 체어(오른쪽).

/코아스

정상용 의자 '마론(MARUON)' 체어(사진)는 천연 대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바이오 가죽(BAM-PL Leather)이 적용된 친환경 제품이다.

80% 이상 바이오 기반 소재로 만들어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동시에 인체에 무해하며 항균·탈취 기능까지 갖췄다.

해의 제품의 바이오 ECO 함유율이 30~5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태광 가을 음악회' 첫 무대 막 올라

흥국생명빌딩 로비서 진행

태광그룹은 13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로비에서 예원학교 학생들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주로 '태광 가을 음악회' 첫 무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자들로 구성된 예원학교 학생들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 세자르 프랑크,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실내악 명곡들을 연주했다. 예원학교는 정명훈, 손열음, 조성진, 임윤찬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명문이다. 태광그룹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는 23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음악회를 연다. 13~17일에는 점심시간인 낮 12시30분, 20~23일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10분에 열린다.

14일에는 성악가인 김은교 세화여중 교사가, 15일에는 태광그룹 임직원 공모를 거쳐 선발된 보컬·댄스 밴



태광그룹이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로비에서 진행하는 '태광 가을 음악회 : Melody in the City'가 13일 예원학교 학생들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주로 첫 무대를 열었다.

/태광그룹

드 '태광 데몬 헌터스', 17일에는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 출신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20~23일에는 한림예고(보컬·댄스), 지혜와 전자밴드(전자음악), 임채희 트리오(재즈), 가수 장예진(발라드)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 기간 유튜브 채널 구독 후 명함을 제출한 참가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ysw@

송편의 역설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은 추석이다.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은 단연 송편이다. 쌀을 도정하고 분쇄한 후 쌀가루로 반죽하고 속을 채우고 찌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음식 문화와 가족의 따뜻한 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좀 달랐다. 송편 한 알 값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치솟았다.

이 ‘풍요의 역설’은 단순히 쌀값의 변동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초래한 시장의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매입(총 62만톤)으로 재고를 정부 창고에 ‘잠그는’ 비축 착시 효과를 낳아 시장 유통량을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재고가 부족해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올해 8월, 정부가 비축 쌀 5만5000톤(추가 3만톤)을 ‘대출’ 형태로 시장에 풀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공급 부족 신호’로 해석해 기존 재고를 더 쌓아두었고 이는 유통 감소와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

래했다고 보도했다.

쌀의 시장격리와 비축정책은 원래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착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격하락을 막는 것이다. 올해도 26만톤 이상의 쌀을 격리 매입하며 총 비축량이 80만 톤을 웃돌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여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점이다. 정부가 쌀을 ‘잠그면’ 민간 유통업체들은 재고 부족을 우려해 확증 편향적 착시 현상으로 더 쌀아 두려 하고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추석 송편처럼 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왜곡현상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송편 한 봉지(20kg) 가격이 6만원을 넘어서며, 김밥집이나 떡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메커니즘을 망가뜨린 전형적인 사례다. 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같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쌀의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REI의 연구에 따르면 벼의 재

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의 확대가 식량정책의 기본 기조가 돼야 한다고 하였다. 쌀의 소비패턴이 줄어드는 거대한 흐름앞에서 과잉 생산을 억제하지 않으면 ‘풍요 속 빈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석 송편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우리 농업과 식문화의 상징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서 송편 값이 오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상징적인 사례로 농민의 소득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비축 쌀 정책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쌀의 과잉 생산을 관리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정밀한 공급 정책 수립을 통해서 정부의 단기 개입을 피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재배 감축과 소비 촉진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루쌀 같은 대안이 쌀 산업을 살릴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올해 추석 비싸게 빚은 송편을 보며 우리 밥상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식량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370만 신용사면과 ‘下石上臺’



기지 수첩

안 재 선
(유통&라이프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어 버리면 언젠가 그 돌들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당장의 임시방편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구조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370만 명 신용사면은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오른다. 370만 명이 모두 대

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이들 중 약 29만 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사면이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는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사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도 이를 또 갚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취약차주 수의 비중은 14.2%로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다. 취약차주 중 대출 비중 역시 12.2%로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다.

이는 단순 사면이 취약차주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250만명의 신용사면을,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식의 사면 조치가 계속되면, 애초에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약차주 문제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게 아닌 새로운 돌을 쌓을 때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8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경험자의 학습을 이어가는 것도 현명. 48년생 변화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온다. 60년생 오전은 어려워도 오후에 풀리니 힘써보라. 72년생 집안이 잘되니 집안에 손님이 많아진다. 8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열린다.



37년생 집에 가면 가족 문제로 근심 나오면 반기는 곳 없어 고독. 49년생 타협의 연속이다. 61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받는다. 73년생 젊은 남편이 먼저 가도 따라갈 수도 없다. 85년생 칭찬을 남발하면 실업이 보인다.



38년생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50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62년생 옷을 준비해 하고 사람을 만나면 된다. 74년생 돈은 부족해도 의리는 깊어아 할 터. 86년생 좀 더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해야만 할 듯하다.



39년생 병 주고 약 주니 환장. 51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 힘드니 조금만 힘내라. 63년생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성형은 끝내. 75년생 기술 배울 때 누구든 처음에는 초보의 수준 힘낼 것. 87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도움을 준다.



40년생 왕 자신감에 빔만 쏜다. 52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64년생 연인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해야. 76년생 재물 늘어남에 조금해하지 말고 세월을 지켜봐야 할 것. 88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41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53년생 서북 이사는 무방하다. 65년생 전심전력을 다 해보면 답이 나옴. 77년생 길을 헤매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보도록. 89년생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때.



42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보라. 54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보기도 해야. 66년생 서로의 믿음은 약속에서 나온다. 78년생 이상 상태를 너무 채근하면 튕겨 나간다. 90년생 사랑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43년생 옛날 일을 잘 알면 오늘도 알게 된다. 55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자제. 67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얻어라. 79년생 살다 보면 온갖 일에 스스로 많이 알게 되니 힘내라. 91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했다.



44년생 가려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56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68년생 연인에게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80년생 한낮의 꿈처럼 덧없는 인생이었으나 젊은 날 많은 시간 다시 활용. 92년생 주변 눈치를 보는 하루.



45년생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57년생 겉모양은 화려하나 실속 없는 하루. 69년생 제발 이간질하지 말 것. 81년생 지금 재물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계획을. 9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떠맡으니 심신이 피곤하다.



4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58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가지 마라. 70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미래에 닥칠 일이 원치 불안. 82년생 집안의 번성도 내 대에서 마칠 것 같다. 94년생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천천히 온다.



4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59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71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83년생 아버지의 일을 거들고 행복하며 수익도. 95년생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김상회의四季

상달 고사

삼국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했던 우리나라는 달이면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은 물론 예불과 함께 호국기도, 발원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전통을 중시하여 토속신도 불교에 흡수되어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을 경내에 함께 축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안위시키며 불교 안에 녹아들도록 했다. 특이하게도 우리 민족의 시조와 일컬어지는 단군왕검에 대한 경외는 단군 신앙이라는 국수적 민간신앙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구한말 대종교(大倣敎)가 바로 그것이다. 대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으로서 옥황상제와 동일인인 환인(桓因), 그 아들인 환웅(桓雄)과 환웅의 아들인 환검(桓儉)의 삼위일체로서 ‘한얼님’을 신앙적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종교로서 이를 ‘단군교’라고도 한다. 환인을 조화신, 환웅을 교화신, 환검을 치화신(治化神)으로 그 속성을 부여했는데, 이 세 분이 하느님의 순수 옛말인 ‘한얼님’이라 칭하며 신앙적 대상으로 존중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종교가 태동한 것이다.

기록에는 단군왕검이 백두산, 묘향산과 함께 마니산에서 재를 올렸다는데, 이 전통 중에서도 강화 마니산은 하늘에 올리는 재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 지금도 해마다 개천절에는 강화 마니산 참성단(塹星壇)에서 하늘의 문이 우리 민족에게 열린 것을 기념하며 단군을 추앙하며 제를 올린다. 일종의 국가적 상달 고사이다. 일반 가정들도 음력 시월 상달이 되면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시루떡을 해서 고사(告祀)를 지냈다. 대청 위에 시루째 떡을 두고 그 앞에 청수한 그릇과 촛불을 켜 놓은 뒤 시루 양옆에 마른 북어를 세우고 대주를 비롯해 집안사람들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절을 했다. 또한, 집 안 곳곳에 떡을 놓아 온 집안이 두루 잘 되기를 기원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은마아파트, 2030년 착공... 49층 5893세대 대단지 탈바꿈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정비사업 기간 18.5년→12년 단축
2034년 준공... 주차난 해소 기대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의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최초로 도입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이 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2030년 첫 삽을 뜨고,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등으로 기존 대비 평균 5.5년이 단축됐다. 이번 시즌2에서는 여기에 1년을 추가로 줄여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의 강남 대표 노후단지

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층수 제한과 GTX-C 노선의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십여 년간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추진된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에 막혀 무산됐으며, 2022년 말 35층 규모로 재건

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후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은마아파트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의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공공분양 주택도 도입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법정 상한 300%→331.9%)를 적용해 총 655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195세대는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현재 은마아파트 외에도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시는 단지의 입지와 도로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단계에서 적정 완화 범위를 설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은마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식품업소 13곳 원산지 표시법 등 위반

서울시 민사경, 총 102곳 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배달업을 통해 반찬류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소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원산지 표시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었다.

특히 배달앱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업소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병기해 혼동을 유도한 더덕무침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또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DNA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

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업체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저가 식품을 판매하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반찬가게 등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고객을 가장해 한우·돼지고기를 구입해 원산지를 검사했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적발된 13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위반 4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현진 기자

주요대학 신입생 '강남 3구 쏠림' 여전

의대 쏠림은 일반학과와 두 배 수준
김문수 의원 "교육 계층쏠림 우려"

올해 주요 대학 신입생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대의 강남 3구 쏠림은 일반학과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였다. 약 8명 중 1명꼴이다. A대 의대는 이보다 높은 21.90%로,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는 24.78%로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1곳 ▲20~30%는 8곳 ▲10~20%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세 명 중 한 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올해 2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국의 3.18%에 불과하다. 그러나 39개 의대 중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단 1곳뿐이었고, 나머지 37개 의대는 모두 이를 웃돌았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교육이 그 핵심 원인"이라며 "서울대 10개 등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찾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데이터를 교육부가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대학별 구체적인 인원 수는 공개되지 않아 의대 전체의 강남 3구 신입생 평균 비율은 산출되지 않았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

6726억 투입... 12월 부터 본공사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시는 오는 10월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열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착공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시설·경쟁력·조직을 아우르는 '3대 축'의 완성을 의미하며, 고양시가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착공식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산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양시의 도전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제3전시장 착공을 계기로

숙박과 교통, 편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 6726억 원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은 올해 3월 기초공사를 마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3A 전시장(4만7000㎡, 4개홀·6개 회의실)과 3B전시장(1만2000㎡, 2개홀)이 조성되며, 완공 시 킨텍스는 제1·2전시장을 포함해 총 17만㎡ 규모의 전시공간을 갖추게 된다. 이는 미국 CES, 독일 IF A, 스페인 MWC 등 세계적 전시회가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조4,56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1, 2, 3전시장 조감도.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성장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숙박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된다. 킨텍스 인근 부지에는 4성급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가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 300실 규모로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완공 시 소노캄(826실), 케이트리(422실)와 함께 약 1,500실의 숙박 인프라가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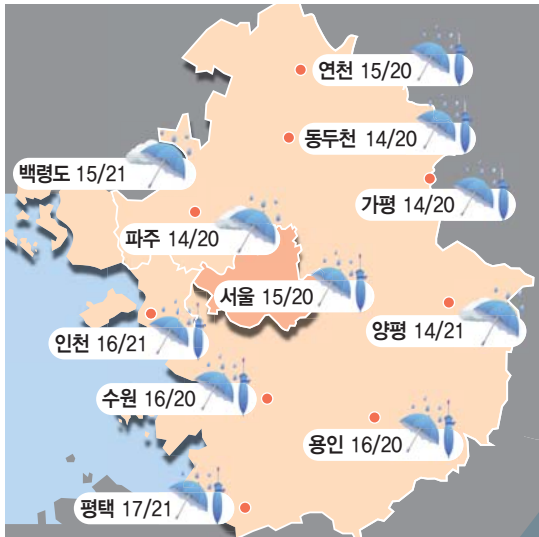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0월 14일 (화)
음력 : 8월 23일

수도권 날씨
15~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연방정부 섰다운 12일째...스미스소니언·국립동물원 폐쇄
▲트럼프 "가자 전쟁은 끝났다"...오늘 이집트서 '중동 평화' 서명식

/사진 뉴시스

▲佛 극좌·극우, 르코르뇌 2차내각도 불신임 추진...사회당 선택은?
▲中 공안, 대만군 작전국 핵심 간부 18명 현상수배·사진 공개

▲오사카 엑스포, 6개월 대장정 마침표...누적 2500만명 돌파
▲BBC, 제주항공 참사 다룬다...“항공업 치명적 한 해”



스타벅스 코리아
리워드 개편 등
고객중심 전략 강화
L1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량생산 기반 구축
글로벌 확장 속도
L2



탄소감축·자원순환 앞장... 내일 위한 약속으로 신뢰 더하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경영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자원순환, 투명경영을 중심으로 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며 ESG를 기업문화와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CCUS 설비 가동...중장기 감축 로드맵 가속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BAU(배출전망치) 대비 29% 감축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지난해(2024년) Scope 1·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여수사업장에서는 올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설비를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K&H특수가스의 처리 과정을 거쳐 식음료용 탄산, 드라이아이스, 용접·절단, 농업, 폐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에 재활용된다.

또한 내부탄소가격제를 전사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고려한 ESG 투자 기준을 정착시켰다. 신규 설비나 연료전환 사업 검토 시 환경·안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구조로 재편 중이다.

환경경영 측면에서는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89.2%를 달성해 목표치(89.1%)를 상회했다. 여수제2에너지는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을 유지했으며 2030년까지 재활용률 90% 달성과 인증 사업장 6곳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4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및 친환경경영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NB라텍스·바이오 기반 신소재 확대...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 본격화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재활용 플라스틱(PCR)·바이오매스 적용 컴파운드 소재 개발을 강화하며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FWCNT) 상업화에 성공하고 재활용 스티렌(RSM)을 적용한 특수합성고무(SSBR) 시생산도 개시하며 저탄소 소재 경쟁력을 높였다.

제품 단계에서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까지 총 16개 제



CCUS 준공식 행사 참석자들이 탄소중립실천 협약서 교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금호석유화학

탄소감축·자원순환·투명경영 중심 기업문화, 경영 전반에 ESG 내재화

2030년까지 탄소배출 29% 감축 목표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89.2% 달성

소재 개발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탄소발자국 수치화...관리체계 고도화

협력사 연계 강화, 공동성장구조 구축 과반 이상 사외이사, 독립·전문성 확보

품군의 전과정평가(LCA)를 완료하고 ISC C Plus 인증 제품 17개를 확보했다. 향후에는 LCA 측정 범위를 26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제품별 탄소발자국을 수치화하는 디지털 평가체계를 구축해 전 과정의 환경영향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품 중심의 친환경 혁신과 책임경영 강화는 단순히 개별 사업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전반의 ESG 경영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자원순환 강화 ▲공급망 ESG 내재화 등 5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며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



여수사업장에서 ESG 워크샵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 실무자 등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사·임직원·조직문화 전반으로 ESG 확산...지속가능 경영 기반 강화

금호석유화학은 협력사와의 ESG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ESG 방침과 진단 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사와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조달체계를 강화해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ESG 수준을 높이는 공동 성장 구조를 구축하며, 공급망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근 울산·여수·서울 등 3개 지역에서 '2025년 협력사 ESG 워크숍'을 열고 협력사 대표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협력사 시상 ▲ESG 평가 안내 ▲협력사 ESG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을 진행했다. 임직원 대상으로는 ESG·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금호MBA', 'Kumho-CARE(육아·돌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실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 ESG 위원회를 운영해 전략과 정책, 성과를 총괄하고 있다.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룹 내 ESG 협의체와 성과를 공유하며 전사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는 "차세대 타이어향 합성고무 등 핵심 소재를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 지속가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 제품 전환과 관련 인수합병(M&A)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금호석유화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문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밀워키행 비행기 탄 김혜성, 훈련도 소화...NL CS 로스터 합류 청신호
▲'136위' 페로제도, 월드컵 예선서 '39위' 체코 2-1 제압 '이변'
/사진 뉴시스

▲한국시리즈 앞둔 LG, 선수단 정리...투수 최용하 등 6명 방출
▲쇼트트랙 남자 계주, 1차 월드컵 금메달...임종언 2관왕

▲여자탁구, 홍콩 꺾고 아시아선수권 4강 진출...중국과 결승진출 대결
▲종합격투기 김상원, TFC21 출전...4년 만의 국내무대 복귀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 KB국민은행의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솔루션 •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KB의 AI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케이봇샘**

일도 자산도 중요한 당신을 위한
투자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1:1 종합자산관리

KB GOLD & WISE

황금빛 인생을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연금관리부터 증여, 건강관리까지 은퇴 종합 관리 솔루션

KB 골든라이프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계약 필독 -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투자성향분석 결과 부적합시 가입 불가 -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 비보장 - 로보샘(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테스트베드 통과가 수익 달성 비보장 - AI 포트폴리오(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음

※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2797-6호(2025.07.08.), 유효기간 2025.07.08.~2026.06.30.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901호 (2025.7.11.~2026.7.10.)

 **KB 국민은행**